

# 내년 U-20 월드컵, 새 감독에 신태용

## 리우올림픽 본선 8강 진출 일궈내 지도력 인정

신태용(46) 축구 A대표팀 코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4명의 후보자 중 신태용 대표팀 코치와 정정용 감독을 최종 후보로 두고 논의한 끝에 신태용 코치에게 내년 U-20 월드컵의 사령탑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챔피언십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부진을 안고 자리에서 물러난 인익수 감독의 후임이다.

신 선임 감독은 현역 은퇴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퀸즐랜드 로어(호주)에서 코치를 지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K리그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이끌었다. 이후 2014년 여름 대표팀 코치에 선임됐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 수석코치를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던 고 이광종 감독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레 올림픽대표팀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리우올림픽 본선에서 8강 진출을 일궈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감독 선임으로 신 감독은 2018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슈틸리케호에서 빠진다.

이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도자부터 프로 지도자까지 다양한 분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며 "어제 슈틸리케 감독, 신 감독과 협의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경험이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공식 토너먼트에서 예산을 통과해 본 지도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신 감독을) 적임자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림픽대표팀도 갑자기 맡아 치른 적이 있는 신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다"며 "전화 통화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응시를 들으면서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협회는 신 감독의 슈틸리케호 이탈에 따라 A대표팀을 위한 새로운 코치와 체력담당 코치를 영입할 예정이다. 신 감독의 자리를 대신할 수석코치는 외국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4개국이 참가하는 U-20 월드컵은 내년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천안, 대전, 인천, 제주, 전주,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사령탑을 맡게된 신태용 감독이 22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익산시청 김지연,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 여자사브르 개인전 은메달 획득

지난 19일 여자 사브르 간판 김지연(익산시청)선수가 2017 새 시즌 첫 경기인 프랑스 오를레앙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 대회의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준결승전에서 아오키 치카(일본)를 15-11로 완파한 김지연 선수는 결승에서 프랑스 홈팬들의 일방적 성원을 등에 업은 마봉 브루베에게 7-15로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지연 선수는 한국펜싱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올해에도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서 8회에 걸쳐 입상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익산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선양 한 김지연 선수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익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외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출전하는 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선수 모두 최상의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한우리 S·B 센터, 실버태권도 전복지부 등록

한우리 S·B 센터(센터장 김용철)가 (사)한국 실버태권도 연맹에 가입을 하고 전북 실버태권도 지부에 지난 10일 등록을 마쳐 활발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한우리 S·B 센터는 무주지역에 동지를 틀고 전국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각종행사 등 적극 참여로 새 지평을 향한 힘찬 날개를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우리 S·B 센터는 지난 18일 전북 실버태권도지부 등록증을 김용철 회장에게 수여받고 앞으로 전북지부로서 각종 행사 등서 남다른 활약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용철 센터장은 "앞으로 한우리 S·B 센터는 실버태권도와 문화공연 시범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 하겠다"면서 "노년층에 나라 사회 취약계층과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해 한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 문체부-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합동 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23일부터 12월7일까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동조사반은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사항인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규정 위반과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과 대한승마협회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 밝힐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 프로야구 외국인선수, 누가 남고 누가 떠나나?

### 올해 FA 대어들 해외 진출로 눈길 돌려... 구단들 수준급 용병 잡기 위해 혈안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재계약 의사 통지 마감(2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용병은 팀 성적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올해 FA 대어들이 해외 진출로 눈길을 돌리면서 구단들은 수준급 용병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올해 통합 우승팀 두산 베어스는 원투펀치 더스틴 니퍼트와 마이클 보우덴, 닉 에반스를 모두 잡기로 했다.

두산의 전력에서 이 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니퍼트와 보우덴은 무려 40승을 합작했다. 에반스는 정확성과 파워를 겸비한 선수로 거듭났다.

두산은 이들의 몸값이 오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모두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연봉이 120만 달러였던 니퍼트의 몸값은 200만 달러 안팎에서 잔류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NC의 강타자 에릭 테임즈의 잔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몸값이 치솟아 한국 잔류는 희박하다.

NC의 외국인투수 에릭 해커와 재크 스튜어트의 재계약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NC는 재계약 통지 마감일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투수를 데려온다는 보장도 없어서 더욱 고민이다. 모든 구단의 고민이기도 하다.

넥센 히어로즈의 앤디 밴 헤켄과 대니 돈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스캇 맥그레거는 떠난다.

중화위원의 팀들에게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 있다.

지난해 대체용병으로 KBO리그에 뛰어든 LG의 데이비드 허프는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을 펼쳐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 헨리 소사 역시 LG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KIA 타이거즈의 헥터 노에시의 잔류도 가능성이 높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의 계약이 불투명한 가운데 가장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헥터의 가세는 반드시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